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3월 13일(금)

..(윤력 1월 25일)..

Пятница

13 марта 2026 г.

№ 10 (1217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러시아에서는 3월 셋째 주 일요일을 '주택 및 공공시설 분야와 소비자 서비스 근로자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 이날은 3월 15일이다. 자영업자인 박 안드레이 콘스탄찌노비치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서 일해 오고 있다. 이르쿠츠크 출신으로, 경공업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및 가죽제품 수선공으로 활동 중이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주, 쿠릴열도 가스화 사업 착수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예브게니 파케르마노브 트랜스마쉬홀딩 부사장과 만나 쿠릴 열도 가스화 사업을 논의했다.

러시아 기계 제조 업체를 선도하는 트랜스마쉬홀딩은 이 프로젝트의 지역 파트너로서, 다양한 용도의 중속 엔진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콜롬나 공장은 특수 가스-디젤 발전기 세트 생산을 시작했다. 2025년 12월, 해당 장비는 쉬코탄 섬에서 러시아 최초의 이중 연료 발전소인 말로쿠릴스카야 발전소 시험 가동에 투입됐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쿠릴 열도의 가스화 사업이 시작됐다. 쉬

코탄 섬에는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첫 번째 시설, 즉 가스-디젤 발전소를 위한 기반시설이 구축됐다"며 "2025년 12월, 액화천연가스가 처음으로 그곳에 공급됐고 장비 시험 가동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올해 가을, 건설과 시운전 작업이 끝나면 발전소는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릴 열도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작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오는 봄, 말로쿠릴스카야 가스-디젤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기 위해 가스-디젤 발전기 2기가 추가로 쉬코탄 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당 발전소는 2026년 가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며, 섬의 주거 지역과 산업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 발전소는 디젤 연료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예브게니 파케르마노브 부사장은 "사할린 주는 수년간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였다. 러시아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는 쿠릴열도 가스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쿠릴열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독립 가스화 방안이 마련됐다. 액화천연가스 인수·저장 인프라가 구축 중이며, 환경 친화적인 이 연료는 현대화되는 전력 및 열 생산 시설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사할린 주 에너지부 드미트

리 쿠바린 장관은 "말로쿠릴스카야 이중 연료 발전소는 쿠릴 열도 가스화의 시범 사업이다. 이후 쉬코탄 섬과 쿠나쉬르 섬에 두 개의 가스-디젤 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며, 여기에는 신규 발전 시설과 보조 보일러 시설 2기가 포함된다. 현재 해당 에너지 센터의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필요한 장비 역시 국내 제조사인 트랜스마쉬홀딩이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쿠릴열도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이정표 및 종합 계획은 각각 2026년과 2035년까지를 목표로 수립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할린 주 정부와 연방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디지털 마야크' 국제포럼 사할린에서 개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이호르' 비즈니스 센터에서 국제포럼 '디지털 마야크(등대): 데이터 기반 경영'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국내외 정부 기관 대표, 정보기술(IT) 전문가, 기업인 등 700여 명이 참가했다.

포럼의 목표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경영, 기관 간 협력 분야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연방 기관, 기업 간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포럼 첫날인 11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도입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각 지역 정부 부처의 프로젝트 사무소는 자체 개발 현황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을 위해 본회의, 신진 전문가 해커톤, 사이버 보안과 의료 분야 변화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회, IT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현안 논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사할린 주, 안전 대책 강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지역 연방보안국 국장은 합동 테러방지위원회 및 작전본부 회의를 열어 축제 기간 및 준비 과정의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범 집행 기관은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경찰과 러시아인위대에 담당 구역이 배정되며, 민간 경비 업체, 카자크 부대, 민간 자율 방범대도 공공질서 유지에 동원된다.

공개 행사 기간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도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집중된다. 모든 시설은 대테러 안전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받을 예정이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명절과 대규모 행사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펼쳐 어떤 위험도 차단하고 섬의 평온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지역 내 교육시설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 기관에서는 테러리즘 및 신나치주의 이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법률 규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과 유익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통적 정신적·도덕적 가치, 역사, 문화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매년 사할린 주의 교육 기관들은 러시아 교육부 주관 전국 훈련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월 15일은 소비자 서비스 근로자의 날

박 올라 대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감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쁨"

'올리' 미용실의 박 올라(52세) 대표와 지난 1월 초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사할린지부 모임 자리였다. 새 지역장과 함께 전 멤버와 새로운 임원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그때부터 이분이 열정이 넘치는 분이 라고 느껴졌다. 그녀가 코윈 행사(자선 바자회, 설축제인 '설날: 조상들의 놀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도 많다는 것을 보면서 '첫 인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박 올라 씨의 인간성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바느질을 좋아하고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릴 적 할머니께서 모자와 양말 뜨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죠. 아마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정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후 재봉 과정을 수료하고 의류 재단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패턴 제작 과정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재봉과 패턴 제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바롭스크에 가서 입학시험을 봤을 때 러시아어 시험에서 떨어졌다. 당시 러시아어가 그에게 너무 어려웠다. 이후에는 대학에 갈 기회가 없었다. 부모님 형편도 어려웠고 곧 시집을 갔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비록 디자이너의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손재주와 창의성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됐다. 특히 행사 장식 마스터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회계원, 여행사 매니저, 사무실 직원 등 여러 일을 경험했다. 이를 위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과정도 수료했다. 일하는 곳마다 성실한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녀가 미용 업계에 발을 들인 것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 중반이었다. 풍선 아트로 유치원을 장식해주고, 항공권 발권 대행 일을 하는 등 끊임없이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본격적으로 네일 케어의 길로 들어선 것은 8-9년 전이다. 당시 한 교회에 다니는 여성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분은 중환자로서 발톱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올라 씨에게 직접 발톱 치료를 할 수 있는 네일 마스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특수 페디큐어 마스터는 당시 도시에서 두 명뿐이었고 예약이 2개월이나 밀려 있었다. 한 마스터는 올라 씨의 사연을 듣고 휴일인 자신의 생일임에도 흔쾌히 이 여성분을 받겠다고 하여 도움을 준 감동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박 대표는 "그 후 나도 사람의 손과 발을 돌보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 주변에서는 처음에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본 남편 안드레이 씨



가 어느 날 돈을 내주며 하바롭스크에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교육 과정을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그녀는 40세가 넘어 네일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마스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마치 운명처럼 그녀가 교육을 받는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지인이 네일 마스터 자리를 마련해 기다리겠다고 연락이 왔다.

'올리 뷰티 센터'의 탄생과 철학

현재 그녀의 작업 공간인 '올리' 뷰티 센터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다. 기존 임대 공간의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척 소개로 새 공간을 보게 되었는데 이 6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처음 본 순간 '참 좋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2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망설였지만, 결국 그곳을 인테리어나고 '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녀의 인품과 실력을 아는

마스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현재의 센터가 완성됐다.

박 대표는 마스터들과 서로 신뢰하고 따뜻하게 교감하는 '아늑하고 화목한 공간'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둔다. 고객들에게 단순한 기술 서비스를 넘어 '보살핌과 관심'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제 직업에서 또 좋은 점은 무엇 일까요? 여성분들이 아름다워지도록, 손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손톱이 정말 예뻐요'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행복해요."라고 박 대표는 말한다.

현재 미용실에서는 매우 바쁜 여성들을 위해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4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줄여 2시간 안에 손님들이 손톱과 발톱 관리를 모두 마칠 수 있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외에도 피부 관리, 레이저 제모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녀의 인생 철학은 '도움'과 '도전'으로 요약된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해보기 전에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라는 좌우명처럼, 최근에는 원격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탈모나 항암 치료 후 고민이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헤어 브로우(눈썹 아트) 기술도 배우고 있다.

신앙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려운 시절 남편과 함께 '빛과 사랑'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후 27년째 신앙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녀는 "신앙이 저의 가장 큰 내면의 버팀목이며,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말한다.

세 딸(26세, 25세, 16세)을 둔 엄마로서, 특히 둘째 딸이 최근 한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지내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박 대표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 '마이 비즈니스(Мой Бизнес)' 센터 등과 협력해 무료 강사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 '시티포럼'에서 진행된 자선 행사에 참여해 장애인들을 도운 경험처럼,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현재 그는 한인 여성 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할린 지부 임원으로 동포 여성들의 사업을 돕고 싶다고 한다. 아이디어도 많다. 그녀는 코윈을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강인한 여성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해 코윈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람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박 올라 대표의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러시아에서 항공권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규정, 3월 1일부터 변경

2026년 3월 1일부터 러시아 국내 항공 탑승객 운송규정이 개정되었다. 이후로 대부분의 경우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권 취소를 포함해 취소불가의 항공권도 환불이 될 수 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 전자탑승권은 종이탑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항공권 취소 및 환불은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공편이 조기 출발한 경우, 친족이 병들었을 경우 등에 적용.
- 유모차 및 기타 아동용품은 비록 아이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기내 수하물로 무료 반입이 가능.
- 12세 이하의 아동과 이들을 동반한 성인은 통로와 분리되지 않은 옆 빈 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선 항공편에서 아동항공권 50% 할인 혜택은 성인과 아동 간 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 18세 이하의 자녀들은 항공사 측의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항공사는 항공편이 2시간 지연될 시 탑승객에게 물을 제공해야 하고, 4시간 지연될 경우 2시간 이내에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간에 8시간 지연될 경우 4시간 이내에 호텔을 제공해야 하고, 야간에 6시간 지연될 경우 2시간 이내로 호텔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항공권 취소와 환불 조치에 대해 사전에 자세히 공지를 해야 한다.

В России с 1 марта изменились правила авиаперелетов и возврата билетов

С 1 марта 2026 года в России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из-

менения в правила авиаперевозок пассажиров. Теперь невозвратный билет можно вернуть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в числе оснований для возврата — задержка рейса более чем на 30 минут, сообщает ТАСС.

Ключевые изменения

- Электронный посадочный талон официально приравнен к бумажному.
- Основания для вынужденного возврата — задержка рейса более чем на 30 минут, вылет рейса раньше указанного времени, болезнь близко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 Коляски и другие детские устройства можно перевозить бесплатно как ручную кладь, даже если ребенок не летит этим рейсом.
- Детям до 12 лет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их взрослым будут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оседние места. Под соседними местами понимаются места,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одном ряду и не разделенные проходом.
- Скидка в 50% на детские билеты на рейсы по России сохраняетс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ем приходитс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взрослый ребенку.
- Услуг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авиакомпанией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для детей до 18 лет.
-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и обязаны выдать пассажирам воду в течение часа после двух часов ожидания посадки,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и напитки — в течение двух часов после четырех часов задержки вылета, предоставить гостиницу —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часов по истечении восьми часов ожидания посадки в дневное врем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часов после шести часов ожидания в ночное время.
- Авиакомпания обязаны заранее и детально уведомлять пассажиров об условиях перелета и порядке возврата средств.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여성 승객에 툴립 수천 송이 전달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터미널은 만개한 정원으로 변모했다. 3월 8일을 기념해 2,000송이가 넘는 툴립 꽃다발이 여성 직원들과 승객들에게 전달됐다.

공항 홍보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항과 오로라 항공, 사할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직원들, 그리고 #МыВместе(우리는 함께)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은 사할린 여성들과 지역 방문객

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가장 먼저 꽃을 받은 사람들은 공항에서 체크인, 안내, 보안 검색, 여권 심사를 맡은 직원들이었다. 이후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에서 도착한 승객들에게도 툴립이 전달됐다.

꽃과 함께 예술 공연도 펼쳐져 봄의 따스함을 더했다. 도착 구역에서는 승객과 직원들을 위해 색소폰과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고, 그 선율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다. 우리 이와니츠키와 올레그 아노힌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멜로디를 활기차게 연주하며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дарили пассажиров тысячами тюльпанов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евратился в цветущий сад. Более 2000 букетов вручили сотрудницам и пассажиркам в честь 8 Мар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эровокзала, так комплекс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акции "Вам, Любимые". Чтобы поздравить сахалинок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постара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авиагавани,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 волонтеры проекта #МыВместе.

Первыми цветы получили сотрудницы зон регистрации, информации, досмотра и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После — по прилёту рейсов — тюльпаны расцвели в руках пассажирок, прибывших из Москвы и Хабаровска.

Кроме цветов атмосферу весенней нежности создали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В зоне прилёта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стоящий концерт. Звуки саксофона и пианино заполнили весь зал. Трепетным исполнением любимых мелодий путешественниц порадовали Юрий Иваницкий и Олег Анохин.

사할린 해조류, 의약품·화장품·친환경 포장재로 재탄생한다

올렉 데리파스카의 '월노예 젤로' 재단 지원으로 사할린 남부에 건설 중인 '아니와' 생물기지와 '생의학 혁신 기술' 연구산업회사가 해양 해조류의 심층 가공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6호, 2026. 3. 10.,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2026. 3. 10.>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제3조(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3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4.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 16.]

제6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1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2024. 1. 16.>

2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4.>3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 16.]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부칙 <제21426호,2026. 3. 10.>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귀천(歸天) /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지금의 '인사동'은 애써 우리 문화의 흔적을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 안국역 인근에 있는 정독도서관을 종종 이용했는데요. 뭐 공부를 하러 간 건 맞지만, 날씨는 화창했고 벚꽃도 만발했기에 서고에 있는 소설들을 주로 읽었던 기억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나 푸슈킨을 이 때 읽었을 거예요. 도서관은 그렇게 제게 어떤 책을 접했는지에 대한 기억의 창고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버스를 타고 사직공원에 있는 사직 도서관을 이용했지요. 영원한 제 베프 재영이 녀석과 아침 일찍 그리로 가서, 해야 할 시험 공부는 대충 하는 등 마는 등 끝내 놓고, 이 때에도 열람실인가 하는 곳에 들어가 신나게 소설을 읽었습니다. 재미있었죠. 공부를 하는 것과 독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허구 속으로 뛰어드는 게 즐거웠을 테니, 뭐. '사직'에서는 겁도 없이 프란츠 카프카나 까뮈를 읽었습니다. 이런 독서력은 막상 어린 나이에 덤뻐졌기에 텍스트를 아주 제대로 이해를 하진 못했겠지만, 나중에 다시 또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만큼은 충분히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언젠가 끝내 그 책을 붙잡고 그 책을 놓질 않나 보니, 결국 그 씩씩한 인간의 이해불가능한 선택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도서관을 좋아하는 제게 사직과 정독 도서관은 그때 그 시절의 도서관에 대한 기억을 뛰어넘습니다. 인사동은 그렇기에 이상하게 나름 젊음의 한 페이지를 넘어서, '정거장' 같은 느낌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사모님께서 그 때 아주 작은 카페 '귀천'을 운영하셨는데, 그 곳에서도 차를 종종 마셨지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때 그 고풍이 냄새가 나던 인사동 거리는 이상하게 현대의 모습과 근대의 모습 뒤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아쉽지요. 이제 '귀천'도 문을 닫았고, 카페 '싱크 커피' 역시 사라졌습니다. 도서관 인근, 근사한 카페들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만 유감입니다.

러시아 유즈니에서 체류하던 시절, 역시나 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서관을 이용했지요. 정식으로 '도서관증'도 만들고, 텀블러에 커피를 탄 뒤, 서너 시간 노트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았지요. 도서관에서 멍 때리다가 걷는 저녁 귀가길, 가가린 공원 맞은 편 햄버거 집에 들러 맥주 한 병과 햄버거라면 행복했거든요. 수술실도 아니고 무슨 검정색 장갑을 낀 채 먹어야만 하는 그 집 햄버거와 맥주 정말이지 끝내줬는데. 잠시 사할린을 다녀갔던 아들 녀석조차 그 집 햄버거를 이 세상 최고의 햄버거로 애걸하거든요.



천상병 시인은 막걸리를 즐겼고, 이렇듯 '귀천'을 남겼습니다만, 여전히 이 시는 제게 속재를 닮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번 생을 소풍이라고까진 말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초봄을 맞아 소풍을 담은 시 한 편을 소개한다는 게 역시 제가 좀 멀리 왔습니다. 제 베프 재영이의 모친상을 들었거든요. 제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분이신데, 마치 까뮈의 소설 속 '모리스'처럼 까맣게 잊고 있던 소중했던 분을 너무 허무하게 떠나 보낸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리고 부디 소풍처럼 이번 생을 기억하셨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늘 고마웠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허진원)

'빈곤의 뒷' 같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세대, "자립 원한다"

지구촌동포연대, 국내 10개 지역 동포 200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1세대 '요양 중심' 정책 한계 지적... "영주귀국 대상 확대, 정착 성공 아냐"

"법 개정, 시작일 뿐... 정부, '시혜적 복지' 아닌 '권리 기반 정착' 체계로 전환해야"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가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영주귀국한 동포 2세대들이 '빈곤의 뒷'에 갇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정부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최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권리 기반 정착'(Rights-based Settlement)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수도권과 경남 양산 등 10개 지역 17개 정착촌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대상이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제도 확대가 실질적 '정착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 세대교체 현실화

6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특별법 시행 이후 영주귀국 대상자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화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 출생한 1세대는 전체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1961년 이후 출생한 2세대가 과반을 차지하는 '새로운 주류'로 부상했다.

설문 응답자의 51.9%는 60~70대, 13% 이상은 40~50대로 나타나 세대교체가 이미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53.2%는 대졸 이상 학력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전문직·사무직·자영업에 종사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세대들의 영주귀국 이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정착 초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77.9%가 '언어 문제'를 꼽았다. 이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36.8%), 생활문화 적응(26%), 행정절차 처리(18.2%) 등의 순이었다.

언어 장벽은 곧 정보 접근권의 차단으로 이어졌다. 병원 이용, 주민등록 등 행정 절차, 취업 정보 탐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의 1세 동포가 통역과 행정 안내를 도맡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고학력이면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이나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책은 임대주택 제공과 기초생활수

급 중심의 생계 지원에 집중돼 있다. 이는 고령 1세대의 '요양·돌봄'에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2세대의 욕구와는 괴리가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빈곤의 뒷'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일부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세대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로 주거 안정 지원(26.4%), 안정적 소득 지원 및 일자리(15.2%)를 꼽았다. 부모 돌봄을 위해 귀국했음에도 가족이 서로 다른 단지에 배정돼 분리 거주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토로하는 불만이다.

"복지가 아니라 배상"... 권리 기반 정착으로

보고서는 사할린동포 정책의 본질을 '복지'가 아니라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한인들이 냉전과 외교 공백 속에 장기간 방치된 역사적 책임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2·3세대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 역시 과거 국가 책임 방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거와 돌봄, 사회보장, 법적 지위를 포괄하는 원스톱 정착지원 체계 구축 ▲단기·중장기 정책 로드맵 수립 ▲안정적 예산 확보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피해자 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 역시 원상회복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확대가 곧 정착 성공 아냐"... 법 개정, 시작일 뿐

최근 특별법 개정으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적 진전은 이뤄졌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상 확대가 곧 정착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영주귀국이 확대될수록 2세대, 3세대의 유입 증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없다면, 빈곤과 고립의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KIN 관계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정책은 이제 '요양 보호' 단계를 넘어 '권리 기반 정착'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귀환 동포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왕길환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устроили праздник души для пожилых женщин



В преддвер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ня актив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лексеем Чоном организовал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группы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75+. Подготовка была тщательной, и результат превзошёл ожидания: стол ломился от яств, главным украшением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изобилие корейских салатов. Но главный сюрприз ждал гостей впереди — с особой любовью

и теплотой активисты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них пельмени с кимчи. П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и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душевных подарков и праздничных тюльпанов.

— Поздравление удалось на славу: гости расхотелись в отличном настроении, сытые, довольные и очень весёлые. Этот день подарил всем море улыбок и тепла, — признаются активисты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здник 8 Марта отметили и члены клуба «45–47» при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Участники клуба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были накрыты «вкусные» столы, звучали тёплые слова поздравлений, всем вр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Вечер прошёл на



ура: в друж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пели, танцевали и шутили. Особ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розвучали в адрес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активистов АСК.

—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устроил нам, пожилым людям,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уши! Всем женщинам —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ещё раз здоровья! Оставайтесь всегда такими молодыми и красивыми! — поздравили собравшиеся.

(Наш корр.)

«Мосфиль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о Чхве Джэ Хёне

Ассоциация дружбы Корея-Россия объявила, что её председатель Мун Чон Гым и российский продюсер «Мосфильма» Александр Литвинов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оддержке производства фильма «Пётр Цой». Председатель Мун,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компании Morning Calm Film (Утреннее спокойствие), заявил, что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ого будут разворачивать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акже покаж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други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ключая соратника Чхве Чжэ Хёна Ан Джун Гына, совершившего покушение на Ито Хиробуми.

Пётр Семёнович Цой (корейское имя – Чхве Джэ Хён) был опорой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в Приморье, успешным бизнесменом, российским чиновником и лидером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опротивления. Фильм, события которого будут разворачивать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акже покаж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други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ключая соратника Чхве Чжэ Хёна Ан Джун Гына, совершившего покушение на Ито Хиробуми.

Председатель Мун заявил: «Тот факт, что Чхве Чжэ

Хён является знаковой фигурой как для Кореи, так и для России, стал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в нашем решении поддержать съёмки,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этот фильм поможет двум странам лучше по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Осенью 2025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Morning Calm Film объявила о завершении работы над сценарием фильма «Пётр Цой – крёстный отец Арм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начале съёмок.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компании является Мун Чон Гым, который познакомил Корею с русским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ом самбо и являет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Сценарий начинается с того, что Чхве Джэ Хён, успешный бизнесмен из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объявляет своей жене Елене о намерени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фильме также показано, как Чхве Джэ Хён организует добровольческую армию «Тонгхве»,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воём детстве генералу Хон Бом До и замышляет убийство Ито Хиробуми.

Съёмки фильма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апрель этого года в Приморье, где проходила осно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Чхве Джэ Хёна.

(Сайт Корё-сар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зяло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нцерте BTS в Сеу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о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редстоящем концерте популярной К-поп группы BTS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ласти ожидают,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21 март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привлечет десятки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включая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поклонник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Юн Хо Чжон провел специальное совещани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офи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распределены обязан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ведомств и обсуждены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возможных инцидентов во время концерта.

По оценк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уд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около 22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включая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ак и иностранных обладателей билетов. Всего же из-за концерта ожид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иезд около 260 тысяч фанатов.

В связи с ожидаемым большим скоплением людей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заранее объявить режим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риске массовых инцидентов. Такой уровень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районах Чонно и Чунгу - центр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кругах Сеула, где расположена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овместно с полицией сформирует специальную группу опе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итуацие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еула создаст команду быстр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для действий в случае чрезвычай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займется провер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нцерт-

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ключая сцен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и зрительские ме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дготовит систему оперативного развертыва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бригад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лиция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регулирование потоков зрителей и обеспеч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также заявили о готовности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озможные вспышки насилия ил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угрозы.

Концерт BTS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привлёк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клонников группы. Уже сейчас в центре Сеула устан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инсталля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выступлению, рядом с которыми фотографируются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прибывшие в город накануне концер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Никита Цхай вынес на себе двух раненых под огнем противника

Прапорщик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икита Цхай в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боевой задачи по эвакуации ранены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табилизировал состояние раненых товарищей и под минометным обстрелом вынес их на себ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в ходе движения к товарищам Цхай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вергался атакам ударных БПЛА противника. «Добравшись до двух ранены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икита оказал им перв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и стабилизировал их состояние.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противник начал минометный обстрел. Невзирая на опасность, прапорщик Никита Цхай лично эвакуировал на себе двоих раненых боевых товарищ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Благодаря мужеству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Цхая были спасены жизни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ообщает ТАСС.

(<https://t.me/saramkor>)



Право выбора в отдельно взятой стране

Сеул, 11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звала избирателей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воскресенье. Это будут первые выборы за семь лет. В КНДР их назвали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призванным укреп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социальную систему. «Нодон синмун», самая популярная газе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звала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назначенные на воскресенье, «важной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ых целей, принятых на девятом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Это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укрепление нашего высшего народ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утем избрания подли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ро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его волей и требованиями», — пишет газета. Эта кампания проходит на фоне предстоящих в воскресенье выборов в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НДР посл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артийного съезда, призванного поддержать реализацию ключевых стратегий и планов, принятых на съезде.

В стать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избир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страны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авные права всем гражданам как «хозяевам страны» и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Как правило, в каждом избирательном округе страны баллотируется только один кандидат. Избиратели должны опустить бюллетень в урну, если они поддерживают кандидата, и зачеркнуть его имя, если они проти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обычно проводятся раз в пять лет, предстоящие выборы станут первыми с 2019 года.

Неделя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ойде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23 по 27 марта 2026 года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Korean Literature Week 2026».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о современным голосам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её глобальному звучанию.

Тема фестиваля: «Пять голосов — одна история: голоса вне границ».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разнообразие литературных голосов, отражающих новые социа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реалии: голоса постсемейной эпохи; женские голоса; неслышимые голоса; голоса диаспоры; голоса памяти».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 лекции, встречи с писателями, дискуссии 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тексте.

Адрес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ул. Таллинская, дом 9.

Предусмотрен онлайн формат участия.

Участие бесплатное, требу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ри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12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ручил своим помощникам оперативно подгото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содейств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н выразил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тем, что усиление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может ослаби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перативно выделить средства,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замед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кризисные врем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еизбежен, поэтому он должен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зидент. Он призвал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скорить процесс подготовк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который обычно занимает от одного до двух месяцев. «Нам нужна мудрость не только в преодолении нынешнего кризиса, но и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того кризиса как новой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асштаб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 особо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еул приложит все силы дл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ризис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действует все доступ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ключа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и активирует систему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трясения в связи с кризисом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Ку Юн Чхоль, выступая 11 марта в Сеуле на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ока. Финансовые рын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повышенную волати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ая вона резко упал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оллару, а цены на топливо внутри страны резко выросли. В рамках ответных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установить потолок внутренн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Кроме того, готовятся так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как запрет на накопление запасов и завышение цен на нефтепродукты. Может быть также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субсидий на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используемое грузовыми автомобилями, автобусами и такси, - отметил Ку Юн Чхоль. РК зависит от импорта энергоснабжителей, поэтом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уязвима к внешним ценовым шокам,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инфляцию.

Нац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ША

12 марта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ША. Ранее он был одобрен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в профильн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ах.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ая буд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реализ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акета в размере 350 млрд долларов. 1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из этой суммы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отрасль судостроения, а 20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секторы, связанные с экономикой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обеих стран.

РК стремится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на размещение Центра ООН

12 мар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Мин Сок отправился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в ходе которой он посетит США и Швейцарию. Цель поездки - продвижения заявки Сеула на размещение центра ООН для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ИИ).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имеюща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название «Цент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ОН», инициати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объединение органов ООН, част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ов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решений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на основе ИИ. Ким Мин Сок побывает в Вашингтоне, Нью-Йорке и Женеве, где посетит ООН, ЮНИСЕФ,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ООН, Всемир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труда 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по миграции. Ране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был назначен главой оргкомитета новой структуры.

Начались мировые продажи Samsung Galaxy S26

11 марта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а о начале мировых продаж смартфонов Galaxy S26. В первый день новый гаджет был доступен в РК,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Индии, а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одажами будут охвачены 120 стран мир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заказов на смартфоны серии Galaxy S26 в РК достигло 1 млн 350 тыс., установив новый рекорд для флагманской серии S. Более 70%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заказов пришлось на премиальную модель Galaxy S26 Ultra. Она оснащена встроенной функцией защиты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пользователям защищать контент на экране от посторонних глаз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клеи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лёнку. Пользователи могут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Galaxy S26 с помощью новых беспроводных наушников Galaxy Buds4 и Galaxy Buds4 Pro,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превосходное качество звука и удобств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RKI

Ким Чен Ын с женой и дочерью посетил концерт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8 Марта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й Ли Соль Чжу и дочерью Чжу Э посетил концерт в ч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ня, которы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тмечаетс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8 марта в Пхеньянском дворце спорта.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ил на концерте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ью, в которой подчеркнул роль женщин в развитии страны. По его словам, успехи государства во многом достигнуты благодаря "особым и часто незаметным усилиям женщин".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за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й труд и искреннюю преданность, которые они посвящают стране и своим семьям".

Лидер КНДР отметил, что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еплым рукам женщин" мужа и дети добиваются успехов на работе и в учебе.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клад женщин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евозможно заменить ничем други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особо отметили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дочери лидера - Чжу Э, назвав ее "любимой дочерью". П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фотографиям она сидела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ржала отца за руку во время просмотра концерта.

В первом ряду на концерте находились и извест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хве Сон Хи,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Ё Чжон, занимающая пост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тдела ЦК партии, а также знаменитая диктор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Ли Чхун Хи.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участие всей семьи Ким Чен Ы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и его публичная речь на празднике в ч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ня стал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и. Ранее лидер КНДР посещал подобные концерты, однако впервые сделал это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й и дочерь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налитики считают,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хеньян стреми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роль женщин в обществе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образ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емьи" на фоне курса на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изма", объявленного после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о сообщениям СМИ КНДР, в Пхеньяне в связи с праздником 8 Марта прошли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я центрально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анцевальные вечера и другие праздничные ак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Ли Чжэ Мён: Сеул возражал против передачи комплексов ПВО и ПРО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США начали переброску части систем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размещ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на фоне обострения конфликта вокруг Ирана. Речь идет о комплексах Patriot и THAAD,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и элементами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защиты американских сил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зидент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признал это, отметив, что Сеул возражал против подобного шага Вашингтона, но не смог ничего сдел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также заверил, что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самой Кореи из-за этого шага союзника не пострадает.

По данным источников и сообщений СМ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уже начали перемещение части системы THAAD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Газета The Washington Post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нтаг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часть компонентов THAAD направляется из Кореи для усиления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американских объектов в регионе.

Передислокация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эскалации конфликта после ударов США и Израиля по Ирану. В ответ Тегеран применяет ракеты и беспилотники против американских баз и объектов союзников в регионе, что привело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расходу перехватчиков и повреждению отде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системы ПР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явились признаки переброски в том же направлении и комплексов Patriot. Наблюдател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ычно интенсивные полеты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транспортных самолетов C-5 и C-17 на авиабазе Осан в Южной Кореи. По данным сервисов отслеживания полетов,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с базы вылетели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самолета C-5 и более десяти C-17,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тяжел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включая

комплексы Patriot.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ходе первых дне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отив Ирана США израсходовали вооружения на сумму около 5,6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ускорил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систем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и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ключая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ереброска систем ПРО из Азии может вызвать опас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зможности ослаблен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регион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ечь идет прежде всего о средствах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дальнейшей эскалации конфликта не исключается и переброска други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ил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одобный сценарий уже происходил во время войны в Ираке в 2003 году, когда часть боев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из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а отправлена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фактически подтвердил факт вывода част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с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10 марта,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 заявил, что Сеул выражал возражения против передислокации, однако не может полностью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ешения США. "Мы высказывали несогласие с тем, что часть систем ПВО может быть выведена, однако реальность такова, что наши позиции не всегда могут быть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ны",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При этом Ли Чжэ Мё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ереброска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не подрывает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По его словам, уровень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страны остаё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в мире, 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ценкам, е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входят в пятерку сильнейши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ол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ищет человека, выбросившего в мусор 16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Пол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пыта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владельца крупной суммы наличных, обнаруженной в мусорном пакете возле жилого дома в городе Инчхо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сводку происшествий, поступившую из округа Чунбу Инчхона.

В один из участков поступило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возле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в районе Кымгок-дон округа Тонгу был найден пакет с купюрами. Деньги обнаружил человек, занимавшийся сбором подержанной одежды. Проверив оставленный у здания 20-литровый мусорный пакет, он обнаружил под старой одеждой пачку наличных и сообщил об этом в полицию.

Всего в пакете находилось около 25 млн вон (примерно 16,8 тыс. долларов). Деньги были упакованы в пачки банкнотами по 50 тыс. вон, перевязанные банковскими лентам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провели проверку купюр на наличие отпечатков пальцев, однако установить владельца денег пока не удалос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пытаются найти хозяина наличности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тал находок Агент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через публикации объявлений в местных газет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следователи проверяют возможную связь обнаруженных средств с преступ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е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если владелец найденной суммы не объявится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деньги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даны нашедшему их человеку. В случае же установления хозяина средств нашедший имеет право на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в размере от 5 до 20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наход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тупила к газификаци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а Евгением Пакермановым. Главной темой переговоров стала газификац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оссийский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й холдинг, крупнейши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разработчик и производитель среднеоборо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различ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является партнером региона в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В рамках этой работы Коломенский завод ТМХ запустил производство уникальных газодизельных генераторных установок. В декабре 2025 года такой агрегат был использован при тестовом запуске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двухтоплив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 Малокурильской.

Газификац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тартовала. На Шикотане созда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первого объекта,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 газодизель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декабре 2025 года туда впервые был доставлен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Тестовый запуск оборудования прошел успешно.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пуско-наладочных работ,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начнет полноценно работать, — зая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одернизац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есной на Шикотан доставят еще два газодизельных генератора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алокурильской газодизель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бъект планируют запусти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сенью 2026 года. Станция обеспечит электроэнергией жилой фонд и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строва. Работать она буде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газе —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и более дешев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изельным топлив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много лет является наши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И для ТМХ большая че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газификаци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 отмети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а Евгений Пакерманов.

Дл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ы по автоном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Здесь создаду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приема и хранения СПГ.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х объектах электрической и тепловой генерации.

Малокурильская двухтопливная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 это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Курил. В последующем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два газодизельных энергоцентра — на островах Шикотан и Кунашир. Они буду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новые объекты электрогенерации и дв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отельны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энергоцентра уже ведется. Агрегаты для них также изготавливает отечественны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Куварин.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и комплексная схема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азработаны на период до 2026 и 2035 г.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граммы реализую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вместно с федер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нергетики.

В альманах «Победители» войдут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героев СВ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депут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Георгия Карлова о продолжении издания альманаха «Победители». Новые тома будут посвящены сахалинским ветеранам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дея расширить тематику альманаха прозвучала на встрече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ветер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ыдущие десять томов были посвящены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руженикам тыла и освобод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Теперь в издание войдут истории участников событий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ском, войны в Афганистане, миссий в Африке и Сирии, операций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Память о защитниках Отечества всех поколений является фундаментом, на котором строится будущее нашей молодежи. Этот проект соединяет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показывая, что подвиг во имя Родины не имеет срока давности, — доб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а над новым томом уже началась. Авторский коллектив планирует собрать материалы о земляках-ветеранах локальных войн и действующих участниках СВО в ближайших месяцах.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ддержал нашу инициативу и высоко оценил значимость проекта «Победители», отметив его важную роль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и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Так что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у и постараемся, чтобы сигнальный экземпляр одиннадцатого тома вышел по традиции к главному нашему празднику — 3 сентября. Это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отметил Георгий Карлов.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недели и затронула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ыполнение 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ы партии «Еди-

ная Россия», по которо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мерам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епутат также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главу региона 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работе в сфере тариф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ят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местном заседани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и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начальник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ФСБ.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переведут на усиленный график работы. За сотрудниками полиции и Росгвардии закрепят зон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 охран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привлекут также частные охра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азачество и народные дружин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местах массового пребывания людей как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 и подготовки к ним. Все объекты проверят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требованиям к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это наша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Важно, чтобы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защищенным, особенно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иков и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ы усиливаем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оди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любые угрозы и обеспечить спокойствие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го заседания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ли вопрос организации адресной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и уси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егион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проводитс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ая работ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терроризма и идей неонацизма. Ребят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норма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овлекают в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полезные внеур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традиционные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е ценности,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остров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участвую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чении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Ф, где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конкретные сценар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модернизирует диагностическую базу

Новейший рентген-аппарат готовится к запуску в самом крупном медузаведении области. Он пришел на замену пленочной установке, которая прослужила врачам и пациентам около 12 лет. Теперь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цифровые детекторы, они позволяют мгновенно получить изображение внутренних органов в лучшем качестве.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которую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асположено вблизи приемного покоя,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нем проводятся пациентам, которые поступили в больницу экстренно. Раньше в смену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могли до 30 человек. Теперь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увеличится вдвое, сокращая время врача на расшифровку снимка.

Примерно две минуты требуется для проявки скрыт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Чаще всего кадров дел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и в сумме около 10 минут уходит на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Теперь цифровой снимок появляется мгновенно на компьютере в высоком разрешении, позволяя детально осмотреть сосуды, выявить стенозы, аневризмы и другие патологии, — рассказала лаборант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лена Филатова.

Цифровая система — не единствен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н обладает опцией «сшивк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снимки всего позвоночника получаются за одну экспозицию, а также оснащен поворотным столом-штативом,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исследование в вертикальном, горизонтальном и промежуточных положениях.

Парк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обновляется регулярно.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могли спасти жизни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В 2025 году сотрудники провели лечение рекорд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ациентов — больше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 среднегодовых показателях в 25 тысяч.

Модернизация больницы проводится постоян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закуплены два УЗИ-аппарата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МРТ для сосудистого центра. В Год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мы продолжаем оснащать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Сейчас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около 50 единиц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19 профилям. Работы уже ведутс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размере 150 миллионов выделено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Рентген аппарат будет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сейчас завершаются работы по допус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Новые школы и «умные» клас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ют создав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бучения детей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родолжается системное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зводя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твечающие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Так, открывая в 2025 году свои двери для 1260 учащихся, школа №24 объединила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заботу об инклюзии и творческую свободу. Всего в учреждении 49 классов-комплектов, оснащенных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занятий как по естественным наукам, так и гуманитар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Уже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ребят к выпускным экзаменам, чтобы они успешно прошли свое первое испытание в стенах новой школы. Здесь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успешной учеб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неу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тдыха в зонах рекреации,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24 Анастасия Мокина.

На переменах школьники отдыхают в просторных рекреациях с диванами и планшетами. Допобразование охватывает множество направлений, а проект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тала нормой. Педагоги также отмечают удобство и комфорт в работ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это всё-таки здорово.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детские творческие потенциалы. Кабинеты химии и биологии оснащены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Мы работаем с микроскопами, наглядными картами, анатомическими макетами, есть даже скелет человека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Биология стала любимым предметом ребят — дети просят больше уроков, — поделилась учитель биологии школы №24 Эльвира Бельих.

Ученик Артем Захарченко в новой школе полу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В рамках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н организовал персон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картин.

Здесь м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помещение, мольберты, поддержк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Цель моей выставки — привить любовь к искусству и культуре родного края, — рассказал Артем Захарченко.

Отметим, что территория школы № 24 также имеет совреме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развития учеников.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зона для общешко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олноценное футбольное пол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ая спор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и зона сдачи норм ГТО, игр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групп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а также оборудованная посадоч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школьных автобусов и краткосрочные парковки для родителей и сотрудников, крытая велопарковка.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 директор школы №24 Анастасия Мокина, в учреждении также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и для обучени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Здесь оборудован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класс для незрячих с широкими партами и машинками Брайля для печати текстов. В коридорах имеется тактильная плитка, указател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абличк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ублируются системой рельефно-точечных символов.

Помим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шко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существующ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рамках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производи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школ, приобретают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что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вать для юных горожан безопасную и комфортную среду обучения.

Так, например, в ходе модернизации в лицее №1 произош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обновления. Здание сохранило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основу, но внутренне оно преобразилось до неузнаваемости. Здесь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й,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кабинетах заменили мебель и др.

Когда ребенку комфортно, ему интересно учиться. Мы заметили: как только в классе появляется новая мебель или техника, дети активнее включаютс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цессы, стремятся изуч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Педагоги тоже загораются желанием работать с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Это создает среду, в которой хочется расти и развиваться.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также важно и дает новый стимул. А это одна из наших целей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 привлеч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исле в реализации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в модернизации, — поделилась советник директора по воспитанию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дет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лицея №1 Ольга Заранок.

Планомерн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и в 2026 году. В числе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в 19-м микрорайоне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Уют». Плановый срок сдачи объектов — 2027 год.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고상구 운영위원장 당선, 재외동포 주도 체제' 본격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9일(월)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중심적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

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도 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오는 9월 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국내 청년 33명,

12개국 동포 기업에서 해외 경력 쌓는다!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지난달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화)부터 3월 6일(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되었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선거 참여 경험 공유 SNS 공모전...

"당신의 이야기가 제도를 바꿉니다."

-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경험 모아 더 편리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선거 참여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SNS 공모전 '나의 선거 이야기'를 3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대상 재외국민은 약 240만 명을 넘어서지만,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은 약 20만 명을 웃도는*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준

그간 재외선거에 관해서는 사전 유권자 등록 절차, 공관 중심의 제한된 투표소 운영, 장거리 이동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모아 국민과 공유하고, 보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재외선거

참여 과정에서 겪은 불편 사례, 제도개선 제안, 투표 참여 경험 등을 글·영상·이미지 등 자유 형식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콘텐츠는 재외동포청 공식 SNS에 게시되며, 누리꾼의 선호도와 사회적 공감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1천만 원 규모로, 대상 1명(500만 원)과 공감상 100명(각 5만 원)을 시상한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재외국민의 다양한 사례를 국민과 입법 관계자에게 잘 알려, 지금보다 접근성 높은 재외선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공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재외선거 관련 법·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해 '서울을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을 세계 최고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내 인베스트코리아와 서울투자진흥재단(이사장 이지형)이 손을 잡고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두 기관은 12일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및 역량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베스트코리아는 1998년 코트라 내 설치된 국가 투자유치 전담 조직으로, 신규 출범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60년간 쌓아온 국가단위 투자유치 플랫폼으로서의 노하우와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시 및 한국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2025년 10월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

유치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 서울을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로 도약시키자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양 기관은 바이오, AI 등 혁신산업 중심의 서울시 전략산업,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동향 및 수요정보 공유, 외국인 투자기업 정주여건 개선, 투자기업 정착 및 애로 해소, 기업 친화형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도 협력키로 했다.

김태형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 투자유치 기관과 협력해 혁신산업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해 서울시, 더 나아가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부모님전상서

편지를 쓸 때 '부모님전상서'라는 말을 써 본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또래 중에 '전상서'라는 말을 붙인 편지를 써 본 사람은 드물 겁니다. 저도 거의 쓴 기억은 없습니다. 어릴 때 큰집에 보내는 편지나 아버지께 보낸 편지에 '전상서'를 붙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상서는 커녕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께 편지를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전상서에는 주로 '기체후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붙습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기체후 일향만강하옵시고'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몸이 항상 건강하신지를 묻고 바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의 한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편지는 형식은 갖추었는데 진심은 담기지 않아서 별 느낌이 없습니다. 몇 번 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에는 '아버지께'로 썼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불가능하거나 전화비가 너무 비싼 경우를 제외한다면 편지를 쓸 이유가 적습니다. 군대에서의 편지가 마지막이라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저는 어릴 때는 시골에 있는 큰집에 몇 번 안부 편지를 쓴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외에 일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먼저 편지를 보내시고, 그에 대한 답장 형태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면, 저도 한 장 정도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쓸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 정도였으니 개구쟁이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생들은 거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집에 전화를 놓고 나서는 편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언제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전화비가 너무 비싸서 긴 통화는 어려웠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알 듯합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대사 중에 '그만 끊자'라는 말이 귀에 남습니다. 옛 어른들은 전화를 참 빨리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0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별이 길었죠. 이산(離散)의 시간입니다.

가족은 이민을 가고, 저는 한국에 공부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 리하여 저는 한국에,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한 가지 결심 아닌 결심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전화를 드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늘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화를 자주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전화비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다지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에 연구년을 갔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에서 방문학자로서 1년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어서 1년간 뵈 수 있었던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미주 지역 신문사에서 저에게 칼럼을 요청하였습니다. 글을 쓰는 게 일이어서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매주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활자로 된 제 글을 부모님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보신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즐겁게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썼던 글이 모여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책을 많이 쓰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그 비밀은 매주 쓰는 칼럼에도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글을 써야 하기에 주제를 정해 놓고 쓸 때가 많았고, 그 주제가 묶여 책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말에 칼럼을 쓰던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지면에 오피니언 칼럼을 실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더 이상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신문사도 힘들 겁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서운해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년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제 '부모님전상서'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계속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체후 일향만강하옵소서!

(출처: 재외동포신문)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양측은 탐사와 연구부터 의약·화장품·식품 산업용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극동 지역 해조류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후코이단은 제약 및 화장품 분야에서 활용되며, 혈전증 예방과 암 치료에 유망한 성분으로 꼽힌다. 알긴산염은 생분해성 포장재와 치유 젤이 포함된 의료용 붕대 생산에 쓰인다. 만니톨은 두개내압을 낮추고 뇌부종을 완화하는 약물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해조류에는 수십 가지의 귀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극동 지역의 상업용 해조류 자원량은 140만 톤을 넘지만, 전국 연간 채취량은 약 4만 톤에 불과하다. 원료의 상당 부분이 수출되는 반면, 해조류 기반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와’ 생물기지는 탐사를 위한 현장 거점이자 시료의 1차 전처리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생의학 혁신 기술’은 실험실 연구와 산업적 가공을 담당해 사할린 해조류를 완제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조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자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산업적 규모로 재배하는 데 담수나 경작지, 합성 비료가 필요하지 않다. 과학자와 생산자 간의 협력은 사할린 해조류를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이며 지식 기반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Из сахалинских водорослей будут делать лекарства, косметику и эко-упаковку

Биостанция Анива, которая строится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Олега Дерипаска "Вольное Дело", и НПО "Биомедицински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

нологии" запланировали совместное создание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цепочки для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морских водорослей - от экспедиций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до выпуска продукции для медицины, косметики и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водоросли содержат множество уникальных биоактивных веществ. Фукоидан применяется в фармацевтике и косметологии и считается перспектив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тромбозов и лечения рака. Альгинаты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биоразлагаемой упаковки и медицинских повязок с заживляющим гелем. Маннитол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препаратов, снижающих внутричерепное давление и снимающих отёк мозга. И таких цен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в водорослях - десятки.

Запасы промысловых водоросл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вышают 1,4 миллиона тонн, тогда как их добыч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около 4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сырья уходит на экспорт, при этом продукты на основе водорослей в основном закупаются за рубежом.

Биостанция "Анива" станет полевым центром для экспедиций и первич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роб. НПО "БИТ" обеспечит лаборато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ромышленную переработку, превращая сахалинские водоросли в готовый продукт.

Водоросли - один из самых экологичных ресурсов на планет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ращивать их в промышленном масштабе не нужны пресная вода, пахотные земли и синтетические удобрения. Партнёрство ученых 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евратит сахалинские водоросли в основу новой индустрии - технологичной, наукоёмкой и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будущее.

러시아, 실종 가족 찾는 시민에 내무부 통해 정보 제공

러시아 내무부가 시민들이 친척이나 지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다 명확히 갖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방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족 등 가까운 이들이 행방을 알 수 없

는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내무부가 해당 시민에게 우편으로 연락해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연락을 원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통지를 받은 시민은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안은 법률정보포털에 게재됐다.

개정된 법은 러시아 국민이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법 '러시아연방 시민의 이동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및 거주권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친척이 자신을 찾고 있을 경우 내무부가 우편으로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법률 공보 포털에도 게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이 경찰에 연락해 친척이나 다른 시민과의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내무부는 찾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수신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Россиян будут уведомлять через МВД, если их ищут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правки внесены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Ф на свободу передвижения, выбор места пребывания и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россиян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 почте извещения от МВД, если их ищут родственники. Документ опубликован на портале правовых актов.

Нововведение закрепляет за гражданами и юристами право обращаться в полицию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контакта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другими гражданами.

Отделение МВД должно будет через почту направить извещение человеку с контактами того, кто его разыскивает. Адресат буд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ешать, давать о себе информацию или нет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p> <p>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